

# D. H. Lawrence 의 자아추구

-(c) Anna Lensky 와 William Brangwen 의 자아-

박 정 길\*

## A Study on the Pursuit of D. H. Lawrence's Self - Anna Lensky and William Brangwen in *The Rainbow* -

Jeong-Gil Park\*

### Abstract

D. H. Lawrence's notion of love is found in the courtship and marriage of three generations. In their relationship Lawrence depicts the steps of love as outlined in his essay : Psychoanalysis.

In Lawrence's opinion genuine love always occurs on the unconscious level : healthy love is necessarily impersonal and non-human because it engages that part of the self that lies beneath the conscious.

Of the three generations in *The Rainbow* Anna and Will, the second generation, experience difficulties in achieving this step than Lawrence's earlier characters.

Their sex-roles grow uncertain, and the *ego* is threatened with merging and dissolution : Anna and Will have failed to pass 'beyond love' and to enter into the eternally blissful realm of harmony and balance prefigured in the novel's opening pages.

They revel in one another. Anna feels she is "the earth, mother of everything". In her fecundity she dominates her husband : like a child on its mother. Whereas Will's life is observed in an ecstasy of passivity.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영문학 전공)

He seeks in religion and it was a great relief. His life becomes a quest for the ultimate interior. He turns away from the World.

In short, the relationship between Anna and Will is criticized by some critics as a failure. But they live out their marital career in their actual livingness and raise children in the village. In addition that, at the end of the novel their daughter, Ursula, does have a vision of the rainbow. And so the relationship between Anna and Will is not a failure at all; in a sense, this is a great triumph of Lawrence's method because Lawrence's process of creation is found in the process of exploration.

In conclusion, the writer wants to emphasize at here i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na and Will seems to the writer, not the realm of perfection, but the state of self-struggle that encompasses love in the next generation. Because the writer believes what Lawrence attempts to show in this generation is not only his doctrine but also the process of the conflict between Anna and Will leading to a type of fulfilment appropriate to them. And that is what Lawrence really attempts to show in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Rainbow'.

본 논문은 D.H.Lawrence (이하 Lawrence)가 소설을 통해서 그가 실현해 보이고자 한 자아의 완성을 향한 과정에 대한 논술의 일부이다.

'Lawrence 의 자아'라는 논제로 *Sons and Lovers* 에서의 Paul 이 지향하는 자아의 도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The Rainbow* 의 제 1세대에서 나타난 Tom/Lydia 의 자아에 대해 논술하면서 이들이 갖는 상호관계의 변화와 진전의 과정에서 Lawrence 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아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혀 보려했던 것이 이 글의 전편이었다.

## I .

제 1세대의 Tom/Lydia 의 관계는 여기서 논하고자하는 제 2세대의 Anna Theresa Lensky / William Brangwen (이하 Anna/Will) 의 관계에 비하면 아

주 내밀했던 관계랄 수 있다. 그러나 Anna/Will 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두 사람의 견해차이가 너무 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언제라도 끝날것 같은 긴장이 있고, 동시에 인간적 관계 또한 고집스러우리 만큼 먼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두사람의 사이가 너무 먼 만큼이나 순식간에 가까워져 오기도 하는, 매우 기복이 큰 불안정한 삶의 양상을 띄고 있다.

Lawrence 가 전개하는 Topic 의 제 과정에는 상호관계가 돈좌된 상태로 남는것은 없으며 Anna/Will 관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Anna/Will 의 관계에서 Lawrence 가 *The Rainbow* 를 쓰면서 스스로 주장했던 바 대로 인물의 안정된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에 대한 실험이 바로 Anna/Will 의 관계에서 강렬하게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에의 실험이 바로 이 둘 두사람 관계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na/Will 의 갈등에서 비롯하는 대결구도는 대체로 표면적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제에 비친 문제점들이 대개는 당사자의 정당성이나 부당함을 결정짓는 요인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것은 대결이나 불화를 몰고 온 화제 들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화제가 순전히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Lawrence 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필연적인 순간을 성취하기 까지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 고유의 의도된 감정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그러한 고유의 의도된 감정은 그의 essay 나 詩 에서 한결 같이 찾아 볼 수 있는 자신의 철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생명주의 사상이라고 하자-은 Anna/Will 의 관계에서 무수히 부딪치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원류의 감정은 외곡 되거나 부정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 같은 대결 구도는 Lawrence 가 말하는 무의식의 'self' 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두사람에게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점은 Marsh farm 을 본거지로 하는 Brangwen家 의 남자가 추구하는 이른바 'blood-intimacy' 에 철저히도 못하고, 여자 또한 종교와 사랑과 도덕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징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제 1세대의 Tom/Lydia 의 사이에 게재되어 있었던 이국적 정서나 호기심 같은것도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Lydia 가 감내해야 했던 비극적 사실하며, Tom 이 고쳐했던 탈선도 없었던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의 관

계를 주목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Lawrence 작품에서 그리흔하지 않는 대결구도를 이 두사람의 관계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인간관계는 대립된 두개의 물리적인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간관계에서 흐르고 있는 물리력, 그 우월한 힘의 과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모습으로 묘사해 냈으로써 이를 통해 본연의 자세를 들추어 내고 그러한 과정 마다의 순간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자아 표현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것일까?

G.H.Ford 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물리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I raised a question which confronts us in every chapter of The Rainbow;

how are we to judge between these two forces? Is light a token of evil, and darkness of virtuous masculinity? Unlike many readers of Lawrence, I argued that in his best writings we are usually being asked not to judge but to witness these conflicting forces. Like fire and water each ca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destroy an individual or a society, but in itself each is simply a force. (1)

그렇다면 이 두개의 힘은 영원한 투쟁일 수 밖에 없고 승자도 패자도, 주의 주장의 옳음도 그름도 없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논지가 과연 어떠한 설득력을 지니는가? 우월한 힘의 과시를 통한 상호간의 대립이 상호관계의 성숙이나 성장에 필수적임을 예증하기에는, 말하자면 정황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Anna 는 知的인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Brangwen 家의 대를 잇고 있는 여성으로서 Tom 을 능가하는 탁월한 비판적 예지를 갖고 있다.

Tom/Anna 의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Brangwen 家의 일원인 조카 Will 이 Anna 와 혼인을 하게 됨에 따라 Anna 가 Brangwen 家의 제 2세대가 되고 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의외 아이러니이다.

Marsh farm 을 중심으로 볼때 Anna 가 중심이고 Will 이 의입자임도 어떤 관점에서는 재미거리의 하나를 보태주는 것으로 예상로운 구도만은 아니다. 그것은 제 1세대와는 다르게 주객의 전도를 볼 수 있고 성별도 다른데서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Anna 가 Will 에게서 느끼는 감흥이 더 뚜렷하게 적시되고 있는데서 발견되는 '*unknown quality*' 에 대한 반응이 또한 예상로운 것이 아니다.

Anna 는 Will 에게서 매우 진지하고도 침착한 가운데서 신비로움과 기묘한 이질성을 발견하고는 내심으로 의기양양해 있으며, 전혀 새로운 경험에 돌입할 준비가 Will 쪽에서가 아니라 Anna 에게서 먼저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Something strange had entered into her world, something entirely strange and unlike what she knew. She was curiously elated. She sat in a glowing world of unreality, very delightful. A brooding light, like laughter, was in her eyes. She was aware of a strange influence entering into her, which she enjoyed. It was a dark enriching influence she had not known before. She did not think of her cousin. But she was startled when his hands moved. (2)

Lawrence 의 '*unconscious self*' 의 획득이 Glover (3) 의 말처럼 '자아'라는 것이 '상호간의 열정적 관계의 충족'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The Rainbow* 의 세계중에서 제 2세대의 그 시작은 바로 Anna 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겠으며 끈고도 변죽이는 그녀의 재치가 생명력이 넘치는 어둡고 의욕에 찬 Will 의 개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도 특성중의 하나라 하겠다.

균형된 두 힘의 양극적 조화를 통한 창조적 흐름에서 포착되는 자아의 고유한 정신적 존재의 추구, 이를 위한 두 힘의 긴장된 대립, 그 흐름의 시작은 '*Girlhood of Anna Brangwen*'(T/R. 98) 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Tom 의 조카인 Will 에 대한 Anna 의 조롱에서부터 충들의 파장은 번져나간다.

Anthony Beal (4) 의 표현 가운데 이런 언급이 있다.

Each generation has to struggle a new up through the Circles of experience, and with each generation the imagery of "becoming" is renewed...

Anna meets Will, she feels that "in him the bounds of her experience were transgressed: he was the hole in the wall, beyond which the sunshine blazed on an outside world." T/R. 114

마찬가지로 Anna/Will 의 만남과 그로인한 인생의 투쟁도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시 시작되어 경험해야 하는 몫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계는 정신적이고 육체3적인 풍요함(richness)이 상호교류되도록 시도된 세계이지만 그러나 둘은 자기 과시에 있어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이어서 육체적 휴식이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너무나 억압된 심리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알려진대로 *The Rainbow* 를 집필하던 시기에 Lawrence 스스로가 주장했던바 그의 사상(私想)은 인물의 안정된 자아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모색에 있었고 그래서 이 소설을 *Sons and Lovers* 와는 다르게 쓰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I have no longer the joy in creating vivid scenes, that I had in *Sons and Lovers*. I don't care much more about accumulating objects in the powerful light of emotion, and making a scene of them. I have to write differently. (5)

그리고 Lawrence 스스로도 I am going through a transition stage myself.....

It is my transition stage. 1914. Jan. 29. Italy. (6)

라 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물의 성격 규정에 대한 그의 관심에 주목하게 되고 Anna/Will 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일상 생활의 제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자아의 실체 또한 더욱 더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Lawrence 가 과연 어떤류의 자아를 Anna/Will 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제 2세대의 Protagonists 인 Ann/Will 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 성격을 개관 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한 episodes 에서 나타나고 있는 Lawrence 의 자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의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 II.

여기서 먼저 Anna/Will 의 만남이 있기 까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Anna 는 Lydia 의 딸이다.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온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Tom 과 자신의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아는 아이이다. 아버지 Tom 을 따라 Derby 로 나들이 가기를 즐기고, "유리실 같은 금발 머리카락에 능금같은 작은 얼굴과 검은눈, 그 눈 언저리에는 언제나 불꽃같은 광채가 감도는 모습" 을 한 아이로 "말씨가 무뚝뚝하고 남에게 굽힐줄 모르는 태도" 가 여러사람의 흥미를 끌었던 그녀는 악의 없는 우월감과 남과의 친교를 신봉하지 않는 당찬 소녀로 자란다.

그녀가 존경했던 사람은 Poland 로 부터 온 망명객인 Skrebensky 남작으로 어머니의 친구였다. 자기위주의 굽힐줄 모르는 자존심 탓으로 知인은 많아도 Ilkeston 이나 Cossethay 마을에서 언제나 고독했다.

그녀의 이런 성품은 Nottingham 의 여학교에 들어 갔을때에도 변함이없이 여전히 순진하고 착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선생님이 행사하는 교권을 마치 자기를 압박해 오는 악의적인 권위로 간주하고 스승을 경멸했다. 사람을 기피하는 성격도 바뀌지 않았으며 학교공부도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거부의를 표하리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스스로는 '소소한 속박을 물리치고 사소한 생각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자유와 자긍이 있는 여성상, 그것이 Anna 의 내심에 깊숙히 자리한 이상(理想) 으로, 그녀의 심층에는 태자비인 Alexandra 공주가 자기이상의 구현체로 각인되어 있다. 그녀의 이러한 자기위치의 설정은 '자기의 불량성'과 자신이 '타고난 열등성'때문에 더더욱 확고하게 맘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등을 돌린듯 하고, 자기 본위의 고고하리 만치 야단스런 태도의 심리적 배경은 아버지, Tom Brangwen 의 호의와 보호벽을 의식하는 안정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녀는 성경말씀에서 이따금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대개는 확신이 없었고, 믿음을 통하여 '자기를 구하려고 생각하기'를 피하는 본능을 가진 처녀였다. 조용하고도 긴밀한 무언의 가정분위기 속에서도 창밖으로 나가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충동과 마음 앓이를 하고 있고, 매사에 공격적이리만치 담대한 태도를 풍기는 여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 Will은 어떤가. 그는 St. Nicholas 성당의 합창단원이었으며, Nottingham에 살고있는 Alfred Brangwen 부인으로부터 lace-factory 의 도안사로써 Ilkeston 에 온다는 Tom Brangwen 에게로의 편지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Anthony Beal 이 요약하고 있는 Will 의 정체는 이런 것이다.

Will is not a countryman but a designer in a lacefactory, a craftsman with a passion for Gothic architecture; and it is the willage church rather than country life that has an irresistible fascination for him. And it is not only the aesthetic delight of the church itself -the stained glass and the carving- but the spirit of mystery and gloom that it embodies. Religion for him has nothing to do with morals and mankind: it is an emotional exerieence of the infinite, the absolute. He believes in miracles and loves the symbols of religion. (7)

Anna/Will 의 맨 처음 충돌은 Will 의 찬송에 대하여 Anna 가 나타낸 거의 조롱조의 비웃음, 그것이 이들 두사람의 투쟁과 화해의 서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Anna 의 Will 에 대한 벼란간의 이런 태도 때문에, 또 그녀의 생육과정에서 들어 났듯이 그녀가 앙큼하고 냉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이유 등으로하여 이들 두사람의 대결구도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Anna 가 Will 을 압도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 짚으로 생각하는 논지가 흔히 제시되고 있지만 필자로서는 다만 작가가 동원한 Anna 의 이러한 처신이 Will 의 그것에 비해 나쁜쪽으로 이해되어



Anna 의 성향이 꼭 나쁘게만 비춰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와서는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Anna 의 Will 에 대한 것처럼 거치른 접근양식은 타박의 대상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특이하게 부각시켜 구태의연한 자아와 분리해 보이고 좀 더 신비스런 방식으로 이들 둘을 접근시켜 보이고자 하는 작가의 책략에 의해 정해진 수순으로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Anna가 Will 에게 내보인 행위가 지나치게 저돌 일변도의 것으로만 규정되어 버리고, 이점만이 강조된다면 Will로 부터 얻어낸 Anna의 감흥하며, 女性으로서의 Anna가 男性인 Will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잔잔한 기쁨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눌러 버리게 되고 Anna/Will이라는 관계 설정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Will의 敎會에 대한 이야기 하며 자기 주변의 이야기의 모두가 Anna의 재촉에 의해 들어나고 있다. Will이 오고 싶을때 왔으면 언제나 기다리는 쪽은 Anna였다. 그리고 Ilkeston에 나가면 Anna는 언제나 Will을 찾았고 Will은 다만 그림자처럼 Anna를 따른다. 이런것이 Anna/Will의 결합을 필연적인 사실로 만드는 커다란 과정의 지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날 Will은 Ilkeston에서 돌아오는 길에 '전기와 같은 정열'로 Anna 에게 kiss 를 하고 있고 Anna 또한 '마력'에 사로잡혀 이제는 두사람 모두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독자적인 길을 가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 1세대의 Tom/Lydia가 체험했던 경험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들 관계의 상징은 Will이 Anna에게 건네준 'butter stamper'를 그녀가 사용하게 되는데서 더 한층 그들 관계가 구체화 되고 있다.

Anna는 Will이 만들어 준 'butter stamper'에 양각된 형상에서 기묘한 生命의 表象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phoenix 이다. 중요한 것은 Will이 조각한 신비로운 불사조가 Anna의 손에 의해 生命이 획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Anna의 Will에 대한 인식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가 더 이상 먼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만이 남는데 까지 온다. 그들은 cool dairy (T/R. 117) 으로 들어가 잠시 사랑을 나눈다. 그런일이 있은 후 Anna와 Will은 집안에서 부터의 긴장과 고통을 넘어야 하는 과정에 들어선다.

비오는 8월 어느날 밤 닭장이 있는 다락방의 문앞에서 두 男女가 서로 껴안고 있는 광경에서 아버지 Tom은 '심약한 포기심'에 괴로워하며 오래전 장남

Tom을 낳던 날 아내의 고통을 피하러 Anna를 데리고 barn(외양간)을 찾았던 기억을 되살린다.

世代之 변화와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Anthony Beal은 人生 의 회전은 불가 피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있다.

On the farm, and in the village, the sense of continuity is strong: the young walk and talk and make love wher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did. Yet this unchangeable rhythm does not make life any easier for them. Each generation has to struggle anew up through the circles of experience, and with each generation the imagery of "becoming" is renewed. When Tom first met Lydia, he had "another centre of consciousness"; but after a few years of marriage they make their "entry into another circle of existence," pass "through the doorway into the further space." (8)

세대가 시작될때 마다 새로운 경험을 격어야하고 또 하나의 '다른 의식의 주축' (=another centre of consciousness) 이 생겨나야 한다면 Anna/Will 의 관계는 Tom/Lydia 의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이상하고 특이한 힘이 한개의 덩어리로 그들의 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다.

그것은 Will 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Eve 의 창조] (=像) 의 조각에 대한 의욕과 희망은 끝이 없지만 'butter stamper' 를 양각할때의 신비스런 감흥과는 달리 끝을 댈 때마다 두 손은 떨리고 형상은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다. 따라서 Will 쪽에서 보면 아직도 Anna 는 염려나 두려움의 대상이지 조화의 대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Lawrence 는 따라서 새로운 관계진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애시대의 sheaves-gathering scene 에서 나타나고 있다.

### III.

Sheaves-gathering 의 장면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가장 흔히 회자되는

말은 Lawrence Lerner 가 말한 'the greatest love-scene in English fiction' (The truth-teller. P. 204) 이라는 말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Glover 같은 이는 이 장면이 주는 metaphor 를 몇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신화적이고도 무속적인 측면에서 이 장면이 주는 상징성을 논하는 이도 있다. (9)

Anna/Will 의 시대는 추수하는 들판에서 그 서막이 열리고 있다. 황금달이 회색 지평선에 걸려있고 천지는 온통 하얀 은색인데 달빛을 듬뿍 받으며 젊은 남녀가 노적가리를 쌓는 일을 한다. (See T/R pp. 122-4) 여기서 Lawrence 는 흔히 있는 수확기의 풍경에다 Anna/Will 의 괴기한 'consummation' 을 그려놓고 있다.

추수를 끝낸 들판의 야심한 밤과 제휴하고 있는 男·女 의 人間, 그리고 크고 둥근 인격체로서의 황금빛의 달이 삼라만상의 신비로움을 밝히고 그들을 지어 본래의 자기 모습을 갖게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mystic stature' 로 부상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그들이 벌이는 왕복운동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Anna/Will 이 조우하는 장면으로- 에서 Anna 가 언제나 먼저인 점이다. Will 은 실체성이 없는 그림자처럼 호맥의 다발을 들고 성큼 다가왔다가는 다시 광막한 들로 사라져 가곤 한다.

Anna 의 물결치는 가슴의 고통과 호맥을 베어낸 공지를 따라 세차게 직선적인 왕복운동을 벌이는 북(=shuttle) 처럼 맹렬히 접근해 가는 Will 의 열정, 호맥의 다발이 부딪치는 소리가 있을뿐 달은 더 한층 밝고 노적가리로 쌓아둔 호맥은 빛나는데 다시 Anna 가 나타나고 호맥의 다발을 놓는 소리가 잦아지더니 마침내 Will 이 Anna 를 만난다.

이러한 Love play 는 이끌고 이끌림을 당하는 가운데 Lawrence 는 성적충동(sexual impulses) 을 자극하는 상징적 mode 를 제공하면서 표면과 내면을 일치시키고 조화를 얻어내려는 인상적인 장면(splendid scene) 을 연출하고 있다. (see T/R. 123-4) 그리하여 神 의 아들 인듯한 Will 이 사람의 딸인듯한 Anna 를 태고의 땅에서 맞아들이듯이 상호 유대의 열정을 결정화 하려는 의식으로까지 접근시킨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언제나 공간' 이 있다. Anna 와의 접촉을 통하여 강열히 그녀를 압도해 갔던 Will 도 끝내 Anna 를 실망속

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Anna/Will 의 Love play 를 설정한 Lawrence 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과 함께 여기서 우리는 그가 소설에서 밝히고자 하는 'otherness' 의 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아로 하여금 상대와의 거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배려하는 narration 의 특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산고(産苦) 를 치루고 있는 제 1세대의 부부(Tom/Lydia) 간의 묘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He went down to her room, entering softly. She was lying still, with eyes shut, pale, tired. His heart ceapt, fearing she was dead. Yet he knew perfectly well she not. He saw the way her hair went loose over her temples, her mouth was shut with suffering in a sort of grin. She was beautiful to him-but it was not human. He had a dread of her as she lay there. What had she to do with him? She was other than himself. T/R. 81-2

이어서 Lydia 가 남편 Tom 을 'impersonal' 의 存在 로 보고 있음을 첨언하고 있다. 산고의 아픔이 절정에 다다른 시각에 여성이 자기 아이를 잉태시킨 남성을 보는 눈초리, 이처럼 압도해 오는 Lydia 의 'eunhuman, Impersonal quality' 는 Tom 에게는 이미 인지된 직관이 되어있다. 그리고 Tom 이 보는 '아름답고'도 탈 인성적이며, '공포' 를 불러 일으키는 Lydia 의 이러한 quality 야 말로 그녀의 다름(otherness) 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Tom 과 Lydia 의 관계에서 보는것과 같은 異國의 친교 이상의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신비로움이 달빛아래서 Anna 와 Will 사이에 交感 되고 있지만 그들 관계의 간격을 극복할 수 없음을 Will 은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거부의 몸짓을 보이는것도 아니다.

They had looked at each other, and seen each other strange, yet near, very near, like a hawk stooping, swooping, dropping into a flame of darkness. So she took the candle and they went back to the kitchen. T/

R. 117

그렇다. 그들은 自我의 存在를 받아들여 자기만의 自我 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other'의 存在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separate, single" (T/R. 121) 로 남아 있다.

"Why was there always a space between them: Why were they apart?" (T/R 123) 라며 Lawrence 는 탄식하고 있지만 自我와 本能의 無意識, 그것은 個人的 有機體와 共存共生 하고 있다. Lawrence 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심리학자가 추구하고 있는 영역역과는 달리 'another centre of consciousness' (T/R. 39) 에 있다.

이것이 Lawrence 가 말하는 'dark self' 이며 이는 경험을 통하여 具象化 할 수 있는 것이지 知識의 인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인식 이전의 혹은, 사고 이전의 생리적 본능에 포함된 'self' 이랄까? Anna 도 마력에 사로 잡혀 있고 (A spell was cast over her. T/R 116), Will 도 암흑에 쌓여 있다.

그런데도 이들 두사람이 펼치는 Loveplay 는 어떤 결정 - 상대방에 대한 적극 호응도 배척 - 도 아닌, 다만 살아있는 自我에서 분출되고 있는 모호한 언어로 남아 있다. 그런의미에서 어둠속에서 노적가리를 쌓는 장면은 어느 특정의 정서를 형성하는 일련의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 적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럴까 Lawrence 는 육감적 경험을 규정하는 外部的 事項을 강렬한 정서라는 관점에서 이를 축척해 나감으로서 장면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생각된다.

개인적인 감정을 스스로가 상황이고 사건이다. 여기서 지적되었듯이 Anna/Will 은 'external fact' 에 미쳐서 균형감각을 잃고 혼미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의 행위가 전적으로 外部的인 것은 아니다. 內心으로는 어떤 상황이나 행위를 적극적으로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주치기만 하면 그 대응이 순조롭지 못한것 뿐이다. 그런뜻에서 감정만은 'sensory experience' 를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대자연의 月光 아래에서 펼쳐지는 sheaves-gathering 이라는 Love play 는 마치 'pantomimic dance' 와 같은 것으로 여기서의 narration 은 'sensory expression' 도 아니다. 그리고 상황도 그 무슨 주문같은 것으로 양극화된 남녀의 움직임이 이상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ritual dance' 를 연상시킨다.

두사람의 왕복운동에서 앞서는 것은 언제나 Anna 쪽이 된다. 그녀에게는 영혼의 소리보다는 "사내의 긴장되고 훌륭한 육체"만이 유일한 진실이 되고 있다. 거리를 두고 Will 이 닥아오고 있으나, 훌륭한 육체 이외의 "그림자같은 남성 환상" (T/R. 130) 일 뿐이라는 설명은 아직도 Anna 앞에 실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Will 에 대한 그녀의 원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북(= shuttle)의 직선적인 왕복운동은 Anna 를 향한 Will 의 목표 지향적 의지와 그에게 부족했던 identity 를 보다 강렬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Lawrence 는 조화와 일치의 순간을 노리는 Will 의 출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Into the rhythm of his work there came a pulse and a steadied purpose. He stopped, he lifted the weight, he heaved it towards her, setting it as in her, under the moonlight space. And he went back for more. Ever with increasing closeness he lifted the sheaves and swung striding to the centre with them, ever he drove her more nearly to the meeting, ever he did his share, and drew towards her, overtaking her. There was only the moving to and fro in the moonlight, engrossed, the swinging in the silence, that was marked only by the splash of sheaves, and silence, and a splash of sheaves.

And ever the splash of his sheaves broke swifter, beating up to hers, and ever the splash of sheaves recurred monotonously, unchanging, and ever the splash of his sheaves beat nearer.

Till at last, they met at the shock, facing each other, sheaves in hand. And he was silvery with moonlight, with a moonlit, shadowy face that frightened her. She waited for him. T/R. 123-4

Will 의 율동적인 움직임에는 자신의 의지를 드세게 집중해 보이려는 부동의 목적의식이 맥박에 실려있다. Anna 의 물결치는 가슴의 고동과 Will 의 움직임, 그리고 북 (= shuttle) 이 주는 이미지가 포함된 일체화되는 리듬. 좁혀진

거리에서 마침내 만나는 Anna/Will 에게 이제까지 반복되고 누적되어온 전체의 계산된 리듬은 生命力의 흐름을 가능케하는 충분한 에너지의 총량이 되고 있으며 이로써 *c'onsummation*'의 실현이 전제된 예비적 수순은 완성되고 있다고 해야겠다. 게다가 Anna 의 Tom 에 대한 결혼 선언은 이러한 수순의 절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Lawrence 에 의해 잘 계산된 화술의 책략이 숨어있음을 볼 수 있다. Tom 은 이렇게 연설하고 있다.

'Marriage'...

'A Man,' continued Tom Brangwen, 'enjoys being a man: for what purpose was he made a man, if not to enjoy it?'

'And likewise,' continued Tom Brangwen, 'a woman enjoys being a woman: at least we surmise she does'...

'Now,' continued Tom Brangwen, 'for a man to be a man, it takes a woman'

'And for a woman to be a woman, it takes a man-' continued Tom Brangwen....

'Therefore we have marriage,'...

'There's no marriage in heaven,' went on Tom Brangwen: 'but on earth there is marriage.'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em,' said Alfred Brangwen, mocking...

There's very little else, on earth, but marriage.... ,but your soul goes gnawin', gnawin', gnawin', and it says there's something it must have. In heaven there is no marriage. But on earth there is marriage, else heaven drops out, and there's no bottom to it.'

'If we've got to be Angels,' went on Tom Brangwen, haranguing the company at large, 'and if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an nor a woman amongst them, then it seems to me as a married couple makes one Angel.'...



'an Angel can't be *less* than a human being. And if it was only the soul of a man *minus* the man, then it would be less than a human being. ...

'An Angel's got to be more than a human being,' he continued. 'So I say, an Angel is the soul of man and woman in one: they rise united at the Judgement Day, as one Angel-'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repeated Tom.

'What I say is, that when a man's soul and a woman's soul unites together - that makes an Angel-'

'I dunno about souls. said Frank' ...

'Bodies and souls, it's the same,' said Tom....

'That I can't tell you. If I am to become an Angel, it'll be my married soul, and not my single soul'. T/R. 137-9

사실 천사란 '신성한 존재'로 성의 구별이 없는 영혼의 집결체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Tom 이 그의 연설에서 어지럽게 뱉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저의가 예상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육체와 영혼 그것은 한가지'요 '내가 천사가 된다고 치면 그것은 나의 결혼한 영혼이지 영혼만의 단독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이 그것이다: Tom 은 영혼이라는 대체(大題) 아래 육체를 논하면서 사실은 육체에 무게를 실어 영혼의 이야기를 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성서에 나타난 남녀결합의 정신과도 다른 것이다.

교회가 요구하는 정신은 영혼에 있다. 그러므로 결혼도 영혼을 가진 남녀가 성에 의해 합하여 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Tom 에 의한 그같은 연설은 부부결합이란 육체가 맺어 주는 것이고 영혼도 육체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Lawrence 가 혈적교환(血的交歡) 을 통한 남녀의 자아를 말할때 그 과정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책략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즉 결혼을 통해서 Will 은

'a fuller being' 이고자 하고 Anna 또한 'a new rich being' 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Lawrence 에게 있어서 *The old fashioned human element* (Which causes one to conceive a character in a certain moral scheme and make him consistent.)(9) (*Italic mine*). 는 건강한 활력(*vital sanity*) 을 추구하는 개인의 'Livingness' 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의 의식은 원형질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식 이다.

The nerves and brain are the apparatus by which we signal and *register* consciousness. Consciousness, however, does not take rise in the nerves and brain. It takes rise elsewhere: in the blood, in the corpuscles, somewhere very primitive and pre-nerve and pre-brain. Just as energy generates in the electron. Every speck of protoplasm, every living cell is *conscious*. All the cells of our body are conscious. And all the time, they give off a stream of consciousness which flows along the nerves and keeps us spontaneously alive. (10)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 그 의식이 '*spiritual/physical richness*' 의 교감을 통해 지극히 자연스런 삶 (spontaneously alive) 을 이끌어 내고 있는 유기체의 총체 (an organic totality of being) 에 의해서 달성되는 세계인 것이다.

Lawrence 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신에게하듯 하라'(12) 라는 말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만약 한쪽에서 상대를 멀하고 나면 승리자 또한 자신의 존재이유를 잃고 소멸'(13)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상대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하여야 한다는 이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 (Anna/Will) 은 아닌 것이다.

#### IV-I.

Anna 와 Will 의 관계는 일상적사고나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접근 방법부터가 대립적 이거나 경쟁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닌가한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함으

로해서 파생된 갈등의 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Anna 와 Will 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고유한 계기로 작용되다니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작가의 사적인 인식을 담아 놓은것이겠지만 그것은 여기서 논의 할 대상은 아니다.)

Anna 로 말하면 Will 과의 만남이 교회에서 비롯되었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였는가 하면, 일찌기 기독교 교의에 대해 의심한적도 없다. 목사는 “선인이 되라고 설교” 해 주었고 그러한 “교훈을 실현” 하는것이 최고의 목적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Anna 는 선인이 되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교회로 부터 그 어떤 기대도 영혼의 각성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차라리 방관자 이상의 무관심자였다.

결국 종교와 신앙에 대한 두사람간의 마찰은 교회를 두고 벌어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독교의 교리가 주는 *dogma* 에 대한 논쟁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온갖 종류의 욕구와 관련된 자기 감정의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Anna 는 *Cana* 의 기적과 관련하여 Will 에 대해 주지주의적 이성에 바탕을 둔 명쾌한 논리로 Will에 대한 반박의 기세를 드높인다. 그러나 교회의 교리(敎理) 는 Will 에게는 무의미한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건 Anna 의 것이건 사색은 흥미의 대상” 이 될 수 없었다. 교회에서 그가 바라는 바는 이런 것이다.

In church, he wanted a dark nameless emotion, the emotion of all the great mysteries of passion.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thought of himself or of her: oh, and how that irritated her! He ignored the sermon, he ignored the greatness of mankind, he did not admit the immediate importance of mankind. He did not care about himself as a human being. He did not attach any vital importance to his life in the drafting office, or his life among men. That was just merely the margin to the text. The verity was his connexion with Anna and his connexion with the Church, his real being lay in his dark emotional experience of the Infinite, of the Absolute. And the great mysterious, illuminated capitals to the text, were his feelings with

the Church. T/R. 158

영혼을 사색함은 곧 자기 스스로의 의지이며 한사람의 영혼은 한사람의 자아에 존재하는 동일체임을 인식하고 있는 Anna 로서는 Will 의 영혼이 교회의 자유함과 신비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Will 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다. Anna 나 Will 이 둘 다 균형감각을 잃고 서로 자신이 신봉하는 바를 고집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두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스스로의 정서를 나타내는 반응이 매끄럽지 못하고 자기 처지의 설명이나 이해로 풀어낼 수 있는 일련의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자체가 대상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교회에 대한 신념만 해도 그렇다. Will 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관념이다. 그곳에 Anna 를 결부시켰음은 Will 나름으로는 독자적인 것이고 Anna 가 거역하지 말아야할 순수성을 지닌다. 그러나 Anna 는 Will 의 地下的인 사랑이 낮의 세계에서 자신의 의존하고 있는 한 Will 의 육구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신의 real 한 점은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이것이 작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의도된 두사람의 한계이다.

Will 은 Anna 앞에서 아직은 패배자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완고하고 집요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Jesus 의 첫 기적이 그에게는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속에서 '절대자' 와 '무한자' 의 권화로 믿고 싶은 것이며, 자기의 지성쯤은 거치해 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Anna 는 다르다. '인간지성의 전능' 을 신앙으로 하고 있고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죽지만 정신적으로는 불멸' 임을 창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Will 이 내세우는 가부장의 권위가 Anna 에 의해 일소에 불여질때 Will 이 만들고 있는 (Eve 의 木彫) 는 불타 버리고 만다.

잠시 정화와 휴식의 순간이 지난 후 Will 은 자기 자신을 자극하고 있는 어둡고 또 그 묘한 'sensual self', 그리고 자아의 강열한 집요성과 마주치는 나날의 일들에 부대끼며 스스로 깊은 상념에 빠진다. 그가 보는 Anna 는 지극히 무모하며 고고한 독자성을 지닌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신이 포박되는 한이 있어도 그녀를 전부 소유해야겠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더 풀어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Anna 가 놀라는 것은 Will 의 자신에 대한 소극적인 둔감성과 Will 의 무섭기까지한 자아만족을 보는 것이었다.

It was his negative insensitiveness to her that she could not bear, something clayey and ugly. His intelligence was selfabsorbed. How unnatural it was to sit with a selfabsorbed creature, like something negative ensconced opposite one. Nothing could touch him—he could only absorb things into his own self. T/R. 154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외면에 분통을 터뜨리는 Anna 는 이즈음 '자기와 남편을 알았고 사랑과 자식을 낳는 정열을 알았다. 이것은 모두가 놀라운 정화로써 자기 주위에 불타면서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Anna 의 각성은 '사랑은 이룩해야 할 제 3의 것' 으로 조화를 통해 이뤄야 함이 당위임을 역설하는 Tom 의 설득이 있는 후에 나타난 정화된 Anna 의 심사인데, 이때는 이미 Will 의 마음이 Anna 를 떠나고 있었고 Will 은 Anna 에게서 욕정의 만족을 갈구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첨차로 Anna 는 남편이 자기 할일을 찾아 영혼의 해방을 가져 올 수 있는 일 없고서는 자신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각성을 하게 된다: Anna 스스로도 Will 에게서 구하고자하는 사랑의 거부된 충족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망한 일이었다. Will 로 부터의 거부된 불만과 노여움은 결국 Anna 의 dance 로 갈음되는 反動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고 있는 grotesque 한 Anna 의 dance 는 그녀가 구하고자하는 것에 대해 거부된 불안과 노여움의 반동으로 보아도 좋을것이다.

In these days she was oblivious of him. Who was he, to come against her? No, he was not even the Philistine, the Giant. He was like Saul proclaiming his own kingship. She laughed in her heart. Who was he, proclaiming his kingship? She laughed in her heart with pride.

And she had to dance in exultation beyond him. Because he was in the house, she had to dance before her Creator in exemption from the man.

She would dance his nullification she would dance to her unseen Lord. She was exalted over him, before the Lord. (Italic mine) T/R. 183-4

여기서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인식과 반발, 그녀의 자부심이 한껏 고무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 측면에서 Anna 의 춤은 그녀 스스로의 초연함과 독자성을 남편인 Will 에게 과시하는 것이 되겠지만 회수를 거듭할수록 Will 을 능가하고 부정하여 독립된 자아를 도모하려는 Anna 의 의도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11)

Anna 의 Will 에 대한 평가는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를 지탱하여 주는 것 외에 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가 준 생명을 자신이 생산한다는 환희와 만족감에 Anna 의 황홀은 끝이없고 그만큼 Will 의 역할은 점점 더 무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Anna 의 기묘한 행위는 무지개의 Vision 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되며 Anna 의 춤이 구사하는 기이한 괴력 앞에서 이유도 모르게 존재의 상실을 맞고 있다.

It hurt him as he watched as if he were at the stake. He felt he was being burned alive. The strangeness, the power of her in her dancing consumed him, he was burned, he could not grasp, he could not understand. He waited obliterate. Then his eyes became blind to her, he saw her no more. And through the unseeing veil between them he called to her, in his jarring voice:

"What are you doing that for?" T/R. 184

그는 아내로부터 화형이라는 물리적인 소멸을 당하고 있다. 그녀의 행위는 Will 로 하여금 'alone, single, independent' 를 수용토록 강권하는 마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Will 도 차츰 혼자 있을 수 있는 괴로움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수 밖에 없다는 자각에 이른다. 그리고 각고 끝에 Will 은 남하 고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다. 혼

자 있을 수 있음이 새로운 탄생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지금의 정황은 'a relative self' 라는 존재를 떠나 'an absolute self' 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얻어진 절대적 자아가 성숙된 자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Anna 는 이성적 사고를 고집하는 정신주의자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Will 의 지배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생활과 자유가 남편의 육체적 욕망의 파괴력 아래 눌러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Will 은 Anna 가 말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며 자기의 이러한 소망이 '욕망속의 짐승' 으로 규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Anna 의 Will 을 향한 자기 방어적 반발은 Anna 가 의도하던 남편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결국 Will 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성숙한 자유를 생각하는 기회도 아울러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에 대한 거부적 의식은 반드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He had come into his own existence. He was born for a second time, born at last unto himself, out of the vast body of humanity. Now at last he had a separate identity, he existed alone, even if he were not quite alone. Before he had only existed in so far as he had relations with another being.

Now he had *an absolute self* - as well as a *relative self*.

But it was a very dumb, weak, helpless self, a crawling nursling. He went about very quiet, and in a way, submissive. He had an unalterable self at last, free, separate, independent. (*Italic mine*) T/R. 190

不動의自我, 自由, 獨立, 自立한自我의 쟁취, 그것은 Anna 로 인해 갖게 된無力한自我인 것을 고려할때 여전히 Will 은 자기存在가 충분하지 못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自己에게 절대적 존재를 부여해줄 더 이상의存在' 를 여전히



갈구한다. 그는 집요하게 그것을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했다. 자신이 아내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아내속에 그 자신의 存在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로서는 그만큼 더 불안하고 초조한 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Will 과 맞서고 있는 Anna 는 스스로가 '고통의 집계에 집혀' 있는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고통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生産 의 소유주로서의 자족감은 여전히 자기것으로 간직하고 있다.

Anna 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무지개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Pisgah* 의 산정에서 보는것과 같은 희망과 약속에 만족하려 하고, 多産 속에 가정의 지배를 통해 안주하려는 자아로 규정되고 싶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Anna 는 분명 *Vitrix* 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Pisgah* 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무지개의 표면에는 Anna 가 닿을 수 없는 거리감과 닿기를 포기한 감정이 잘 윤색되어 있다. 더우기 무지개와 태양과 달의 운행이 Cossethay 마을의 집 주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Anna 는 이에 매혹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도 걱정된 자신의 소극적인 안정에 불안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Dawn and sunset were the feet of the rainbow that spanned the day, and she saw the hope, the promise. Why should she travel any farther?

Yet she always asked the questions. As the sun went down in his fiery winter haste, she faced the blazing close of the affair, in which she had not played her fullest part, and she made her demand still: *What are you doing, making this big shining commotion? What is it that you keep so busy about, that you will not let us alone?* (Italic mine) T/R. 195-6

이로서 現實 에 안주하려하는 Anna 의 자세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지금 自然 의 사이클이 주는 경이로움에 감동된 나머지 마치 자아 실종의 방관자처럼 보인다. 이제 Anna/Will 의 대결구도에서 물리적 충돌은 잠시 표면에서 사라져가고, 표면상으로는 안정을 찾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의 뒷전으로 젊음은 가버리고 Anna 는 지금 한때의 정열을 이제

는 가정에서 아이 낳는 일을 풍요에 대한 만족감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끌려오기만한 Will 의 피해의식은 아내가 허전히 남자의 가부장적 권위 (= patriarchy) 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아내에 대응하여 자신과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몽롱한 망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한없는 위안 ( a relief, a great, great relief T/R. 190 ) 이 된다고 믿는 것이 지금의 Will 이다. 물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Anna 를 회피하는 자신의 의지를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새자유 ( a new, deeper freedom ) 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과연 독자성의 결핍으로 볼 것인가. 필자로서는 Will 이 갖는 변신의 의지가 그의 독자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대사원의 방문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또하나의 충동은 바로 이같은 변신의 과정에서 목격되는 두사람의 개성을 확연히 설명해 주고 있음에서 더욱 더 분명해진다 하겠다.

#### IV-II.

Anna 가 *Pisgah* 의 산정에서 보는 희망과 약속에 살았다면 Will 은 Cathedral 의 웅좌에서 느끼는 황홀과 열망에 살았다. 그만큼 두사람의 인식은 서로 달랐다.

Will 에게서 *Lincoln* 사원은 영원한 충족의 경험이며 극치요 경탄의 무지개다. Anna 역시 사원을 보는 순간 '경탄과 의구'로 압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Will 은 Anna 에게 기묘한 망아적 흡수 (=strange absorption) 을 요구하였고, Anna 는 Will 에 대하여 흡수 당하지 않는 초탈한 고유의 자아를 주장했다.

대성당의 세계는 혼돈이 제거된 의미 깊은 통일을 보여주고 있다.

Away from time, always outside of time! Between east and west, between dawn and sunset, the church lay like a seed in silence, dark before germination, silenced after death. Containing birth and death, potential with all the noise and transition of life, the cathedral remained hushed, a great, involved seed, whereof the flower would be radiant

life inconceivable, but whose beginning and whose end were the circle of silene. Spanned round with the rainbow, the jewelled gloom folded music upon silence, light upon darkness, fecundity upon death as a seed folds leaf upon leaf and silence upon the root and the flower, hushing up the secret of all between its parts, the death out of which it fell, the life into which it has dropped, the immortality it involves, and the death it will embrace again. T/R. 201-2

그리고 성당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것. 그것은 불멸이다. 바로 여기에 Will 의 영혼도 함께 녹아 있으며, 그의 억제된 욕구는 침묵속에 대성당의 어두운 內室에서 씨앗처럼 물여있다.

Will 에게 있어서 'Lincoln Cathedral' 은 완벽한 자궁(=the perfect womb) 이었고 경탄의 女性(she) 이었다. 그속에 겨우 살아 남았던 Will 의 잔잔한 욕구는 그것마저 소멸되어 버리면 필연적으로 자아의 상실일 수 밖에 없는 內心의 치열한 정서이다.

Lawrence 는 이 같이 Will 속에 감춰진 內心의 유린된 질서를 성당의 內部構造에서 발견되는 완벽함과 확고함 그리고 견고하게 구축된 영원의 조형물이 지배하는 공간을 신성과 인간영혼이 다같이 지배하는 공통의 場속에서 가두어 둔채로 다만 Will 이 간직한 힘이 작지만 그러나 뚜렷한 그 힘을 현재의 불행한 사태에서 떨쳐 나아가 원인으로 소급하여 원소적 자아의 정의적 신념이 담긴 방해받지 않는 자아의 내면적 의식으로 배열해 놓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위에 Will 을 세우고 싶었음인가? Will 은 과연 Arch 의 정상에서 영원한 황홀에 잠겨있다.

Here the stone leapt up from the plain of earth, leapt up in a manifold, clustered desire each time, up, away from the horizontal earth, through twilight and dusk and the whole range of desire, through the swerving, the declination, ah, to the ecstasy, the touch, to the meeting and the consummation, the meeting, the clasp, the close embrace, the neutrality, the perfect, swooning consummation, the

timeless ecstasy. There his soul remained, at the apex of the arch, clinched in the timeless ecstasy, consummated.

And there was no time nor life nor death, but only this, this timeless consummation, where the thrust from earth met the thrust from earth and the arch was locked on the keystone of ecstasy. This was all, this was everything. Till he came to himself in the world below. Then again he gathered himself together, in transit, every jet of him strained and leaped, leaped clear into the darkness above, to the fecundity and the unique mystery, to the touch, the clasp, the consummation, the climax of eternity, the apex of the arch. T/R. 202

이곳의 빛은 '밝음(light) 도 어둠(darkness) 도 아닌 박명(twilight)'(14)이며 생명의 정수(the very essence of life)인 대성당 그 內室 은 황홀의 공석(拱石) 위에 결합되어 유압속에 묻혀있다.

'석주와 석주의 결합', 이에 상응하여 서로 맞물고 짝지어 서 있는 아치, 거대한 지붕을 받들고 있는 석주와 돌출된 돌, 이들 구조물과 어울어진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에 압도된 거기에 Will 은 있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Anna 는 성당의 內部 가 주는 분위기를 한계('ultimate confine')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밀폐된 지붕내에서 속박감을 느끼게 되면 밖에는 트인 하늘이 있다는 인식으로 자유를 향한 도약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붕 보다도 더 높은 자유'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했다.

Anna 가 세속적인 *Imps* 에 접근한것은 바로 이러한 Will 의 맹목적 황홀에 저항하는 자기 의지의 이성적 반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Imps* 의 모습을 통해서 Anna 는 대성당이 전부가 아니며 '이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 있다 해도 세계에는 이 속에 없는것이 얼마든지 있다' 라고 조소함은 Will 의 종교적 태도에 대한 Anna 의 파괴적 욕구랄 수 있다.

G.H.Ford 는 이러한 Anna 의 행위를 일러 'a balloon pricker'(15)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nna 는 성당에 대한 Will 의 도취적인 욕구의 교류를 망쳐놓은셈이 되었다.

Will 은 자신에게 절대자로 보였던 存在 가 아내에겐 한낱 사물(=a dead

matter) 로 보였음이 안타까운 것이다.

결국 대성당에서도 Will 의 生命力(=vital illusion) 은 Anna 에 의해 저지되고 있으며 Will 은 그가 열망하는 진실의 세계에서 조차 설자리를 잃어, 자신의 환상을 부셔놓은 아내를 배반의 모습으로 원망해야 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결국 두사람 관계의 새로운 창조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대성당에 대한 이같은 Anna의 관념적 반발은 역시 Lawrence 가 지니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을까 싶다.

대성당의 방문 이후에 Anna/Will 의 생활은 변모해 갔다. 두드러진것은 Will 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의 제 목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성당이 Will 에게 주었던 단혀진 世界 에서의 종교적 열망도 아내의 모독과 조롱속에 차단 당하고만 지금 교회는 이제 자기 갱생의 때를 맞이까지 그의 영혼이 침겨해야할 은신처와 같은 곳이 되었다. Will 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맹목적인 정열의 추구를 통한 자기만의 노력, 어두운 본성으로의 회귀, 그것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었다. 아내가 자기의 vitality 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맞설수도, 논쟁을 벌일수도 없었다. 內心 으로 는 분노를 삼키면서 그녀에게 종속되어 지낼 따름이었다.

Anna/Will 간의 또 하나의 균형과 조화는 전혀 이외의 방향에서 찾아오고 있다:

Nottingham 에 나가서 Jennie 라는 아가씨와 노닥거리다가 돌아온 남편이 달라져 있다고 느낀것은 Anna 의 직관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Will 의 관능에의 관심이 아내와 자신을 잠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 변화는 Anna 쪽의 발 빠른 대응에서 온 것이지 Will 의 의지는 아니었다. Anna 의 이러한 作用 에 대해서 Will 이 피동적으로 반응해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두운 본성을 실현해 내기가 어렵다는 자아의 긴장상태가 Will 의 內心 에 지속적으로 간직되어 이것이 행동화에 방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He must submit to his own inadequacy, the limitation of his being. He even had to know of his own black violent temper, and to reckon with it. But as she was more gentle with him, it became quieter.

As he sat sometimes very still, with a bright, vacant face, Anna could see the suffering among the brightness. He was aware of some limit of himself, of something unformed in his very being, of some buds which were not ripe in him, some folded centres of darkness which would never develop and unfold whilst he was alive in the body. He was unready for fulfilment. Something undeveloped in him limited him, there was a darkness in him which he could not unfold, which would never unfold in him. T/R. 210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 의 再生 을 가능케 해주는 사건이 있다. Ursula 의 탄생이 그것이다. Will 은 Ursula 를 통해서 자아의 태동을 위한 몇 가지 의식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Will 은 '자기 자신속의 아득히 먼' 곳으로 부터의 반응의 근원을 Ursula 의 우는 소리에서 찾고있다. Will 은 아이의 찢어지는듯한 울음소리가 살아있는 자신을 조직하고 있는 아득한 근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특히 Anna 의 무릎에서 벌거숭이인채로 있는 상처받기 쉬운 꼬마생물이 만들어 내는 공포의 울음소리에서, 그리고 생리적으로 무방비하고 무력한 상태의 딸에게서 자신이 지닌 혼의 外在化 와 같은 견딜수없이, 초조하고 긴장된 경계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Ursula 와 Will 은 기묘한 동맹관계(=a strange alliance) 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긴밀한 부녀관계가 동시에 위기를 예비하는 과정이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Ursula 가 고집스럽게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고 대신 아버지를 따르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후에 Will 이 Ursula 에게 감자 심는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대지와 의 끈적끈적한 관계를 통해서 Brangwen 家 의 남성들이 자족했던 'blood-intimacy' 를 가르치고자함이 아니라 딸에게 실질적 수고를 통하여 각성과 성찰의 계기를 주려는것처럼 보이며, 여기서 딸은 아버지의 정확성과 날카로운 동작에 압도되어 그녀 자신이 무력해지는 당혹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 Will 이 냇가에서 어린딸을 등에 업은채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이라거나 아이가 겁에 질리도록 그녀를 태우는 장면도 그렇다. Ursula 에 대한 Will 의 이같은 물리적 힘의 과시는 무엇을 의도코자할일까?

이것은 어떤면에서 지금까지 Anna 에게서 자신이 잃어가고 있었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상대방의 지배를 통해서 內心의 욕구를 실현해 보려는 의지의 도 착적 표현이라고 생각할수는 없을까?

이후 아이 (Ursula) 는 상심해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과연 Will 은 Anna 에 대해 어느정도의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다. (see PP. 226-7) 그러나 그것은 동물적 인 욕구 충족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 정신적인 피폐의 과정이다. 여기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Will 의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시작 된다.

심각한 육욕추구의 생활로부터 '목적을 가진 삶' (=a real purposive self) 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內的活動의 정신활동이 시작되고 Will 은 이러한 자신의 생활에 어떤 형태를 부여코자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목적을 가지고 활동' 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變身 하여 Cossethay 에서 wood-work class 를 경영하는 수공예 교사가 된다.

## V.

Marsh farm 에서의 이들 두사람의 관계는 잠시동안은 육체적 정열과 새롭 고도 강렬한 의욕으로 상당한 역사의 변동을 초래할뻔 했으나 매우 제한적인 변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Anna 가 조성한 긴장감은 Marsh farm 의 생활을 침체케 하고 가정의 화목을 무디게 했다고 하겠으며 多産의 충족을 즐기는 Anna 에게 자식들의 원천으로서 이의 원인 제공자인 Will 의 현실적 접근은 Lawrence 의 Idea 의 관점에서 보아 균형과 조화를 통한 自我의 성취는 이미 그들의 출발이 그랬듯 실패의 도정으로 밖에 불수없는 상황이되었다 할것이다.

그러나 둘은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조화의 실패는 있었다 하겠지만 개성의 실패는 아니었다. Anna 와 Will 의 관계는 유사성 만큼이나 불일치 되는 불명성과 불확실성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 의 종교적 미적 정서의 강렬성과 Anna 의 이성적 지혜와 자아인식,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고뇌를 동시에 보여준 이들 관계의 형성은 선대(先代) 가 보여준 경험적 영역 (sexual relationship) 으로의 선회만으로는 이들의 결합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일이며 그같은 구태의연한 경험을 이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



용한 것이 되고 있다.

Lawrence 에게 있어서 가식에 맞서는 순수한 사랑은 언제나 'Unconscious level'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impersonal, non-human elements' 와 관련을 맺고있음을 보아도 분명한 이치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의식과 정상적인 감정의 심연에는 반드시 'self'가 作用 하고 있다. 이것이 Lawrence 의 'self motive' 이며 'Unconsciousness'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랑의 결합은 Psychoanalysis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 가운데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두사람의 행위에는 'personal, conceptual' 따위와 같은 의도는 조금치도 없다.

선대(先代)의 Tom 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自我意識 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스스로 人生 의 종말에서 아내와의 호응이라는 만족을 성취함으로써 自我를 실현한 본 보기였다.

Tom 에게 있어서 무지개의 Arch 는 Gothic 이 아니었다. 그에겐 오로지 Roman 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Will 은 달랐다. 그는 예술가였고, '인류의 좌절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Gothic Arch 가 훨씬 더 큰 매력이었다. Will 은 조롱과 회의주의적 불만의 포로가 된 Anna 를 제치고 자신만의 절대를 향하여 그의 영혼을 도약 시켰다. 그리고 이속에 잠재된 그의 Gothic Arch 에 대한 당초의 열정은 Ursula 에게 역동적인 生命感 으로 예비되어 Lawrence 적 성취의 과정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하겠다.

## references

- (1) G. H. Ford. Double Measure: A study of the Novels and Stories of D. H. Lawrence. P.119. Holt, Rinehart and Winson, 1965, (이하 G. H. Ford, page 로만기입).
- (2) The Rainbow. Penguin Books. 1981. (이후 T/R. page) 로 표기함.
- (3) F. Glover Smith. P.19.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 The Rainbow. 1971, Southampton (이하 Glover 로 표기함).  
cf : selfhood is attained in the fulfilment of a passional relation.
- (4) Anthony Beal. P.31. D. H. Lawrence. Oliver and Boyd London, 1964 (이하 Anthony Beal, page 로만 기입).  
also see. T/R. P.114.
- (5) Harry T. Moore. Letters I, P.263.
- (6) Ivid. Letters I, P.264.
- (7) Anthony Beal, P.32.
- (8) Anthony Beal, P.31.  
註
- (9) 어떤 scene 을 ritual 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수도 있겠으나 (가령 Moynahan 은 5개의 ritual scenes 으로 區分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의 이해에는 Jane Ellen Harrison 의 Ancient Art and Ritual 과 J.G. Frazer 의 Golden Bough 를 참고함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 (10) The Collected Letters. Vol. I. P.281. Harry. T. Moore. Heinemann. 1962.
- (11) Phoenix I, P.767.
- (12) Ephesians. 5. 22.
- (13) Phoenix. Vol. II. P.P. 365-74.
- (14) H.M. Daleski : P.101. The forked flame. Fable & Fable. London. 1965.
- (15) G.H. Ford : P.121.

